

# 신재생에너지·R&D 특구 등 탄력

◇호남고속철 조기완공=이 대통령은 이날 “호남고속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당겨서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완공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가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을 검토해보니 문보다는 물리적인 문제로 문제가 있지만 오송~광주까지는 2014년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완공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말해 국토해양부의 입장변화가 기대된다.

이로써 조기완공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호남고속철도는 광주까지는 2014년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당겨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목포까지는 완공시기가 불투명하다. 정 장관은 “광주~목포 구간의 경우 조정돼야 할 이슈를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밝혀 전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고속철도의 무안공항 연결로 인한 노선변경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완공시기가 정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호남고속철도는 오송역과 익산역 일괄수주공사 구간을 6월 착공하고 나머지 오송~광주 182km 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뉘어 9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5+2 광역경제권=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전남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많다”면서 “경제적 논리로 잘 이끌어가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 R&D특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와 R&D특구 지원 의지를 내비친 것은 그동안 권역 재조정을 강력 요구해온 광주시와 전남도에 두 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자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조만간 5+2 광역경제권 논란도 결론이

호남고속철도와 광주 R&D특구 지정,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 개발) 등 광주·전남 현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부처 장관들이 16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들 사업을 직접 언급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갈등을 빚어왔던 J프로젝트와 호남고속철도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향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李 대통령 방문 이후 지역 현안 전망

### J프로젝트 등 ‘녹색 산업’ 정부 지원 약속

### ‘5+2 광역경제권 논란’ 경제논리로 풀 듯

날 것으로 전망된다.

◇J프로젝트 지원=이 대통령은 “전남이 고심하고 있는 서남권의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진척도가 낮았다”고 평가하

고 “앞으로는 그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맞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한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애초 일정에 없었던 J프

로젝트 사업부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서남권이 우리나라 관광 투자의 모델”이라며 “광주·전남은 녹색산업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을 잘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렵다고 움츠리지 말고 그럴 때 기회와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까지 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J프로젝트 6개 사업지구 중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놓은 2개 지구(삼호·구성)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전남도가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해놓은 2개 지구에 대해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간척지 양도·양수문제 등이 걸려 있는 나머지 4개 지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분명하고 투자자가 나서면 간척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윤영기기자 cki@kwangju.co.kr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당공천폐지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은 16일 광주시 동구청에서 남상우 청주시장(회장)과 유태영 동구청장(부회장) 등 12개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폐지’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시설

### 대통령 의지 못쫓아가는 장관·공무원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광주·전남지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지자체 업무보고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만 새해 첫 방문지로 광주·전남을 선택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청와대 관계자도 “지방경제 보듬기와 호남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업무보고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나라는 거꾸로 돼 있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장관은 신중하고, 그 밑의 공무원들은 더 신중하더라”며 “호남고속철 조기완공도 나 혼자만 급하다. 관련부처는 계속 검토만 하며 내 의지(조기완공)를 못 쫓아 오고 있다”고 공직사회를 질책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F1 특별법이 꼭 필요한 것인가. 사업성만 있으면 정부가

지원하면 된다”며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도 의지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J프로젝트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맞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발언은 지역 현안에 대해 강한 관심과 함께 정부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지극히 관련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역현안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없다. 지역 현안에 대한 중앙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을까.

광주시와 전남도도 ‘낙후 타령’에서 벗어나 확실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지역 현안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불황으로 갈 곳 없는 아동 급증한다는데...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상당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정원초과 상태로 운영되거나 그나마 일부는 수십 명의 어린이들을 장기간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수용인원을 늘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보살핌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무료 급식과 학습, 생활지도 등을 해주는 일종의 ‘빈곤층 아동 공부방’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광주지부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에 48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약 1천400여 명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들 어린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아동센터에 머물며 점심 식사는 물론 낮시간 맞벌이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 교사로부터 영어·수학·미술 등을 배운다. 물론 경비는 전액 무료다.

이 같은 해택 때문에 갈수록 센터에 들어오려는 어린이들이 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센터마다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정원을 늘리라고 해서 지원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조리사와 교사를 추가채용하는데 드는 경비 때문에 무항정 수용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그나마 방학이 끝나면 다른 시·도와 달리 광주는 급식비 지원도 중단된다.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 센터의 따뜻한 점심 한끼와 보살핌을 받지 못해 거리를 배회할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불황의 그늘이 깊은 지역이아말로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의 정신이 절실해 보인다.

### 유인촌 “F1 성공확률 반반...나중에 책임져야”

### 박종영 “누구한테 보고 받고 잘못된 판단하나”

#### 문광장관-전남지사 ‘F1 설전’

1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지역발전토론회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F1(포틀러원) 국제자동차대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장황하게 거론하자 박종영 전남지사가 즉석에서 강력한 반론을 제기, 순간적으로 토론회장 분위기가 경직되는 모습이 연출됐다. 박 지사는 또 지역 조선산업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선 안 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이날 “F1은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다”며 비판적인 견해로 발언을 열었다. 유 장관은 이어 “(F1사업을 추진하면) 나중에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길 것”이라며 “내년에 영암에서 첫 대회가 열린다는데, J프로젝트는 착수도 하지 않은 채 황무지에서 경주하는 셈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지사가 즉석에서 반격에 나섰다. 박 지사는 “그렇다면 대통령 앞에서 확실하게 하지”며 “외국에서는 F1대회를 유치하려 안달인

데, 도대체 누가 어떤 보고를 하기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 지사는 이어 “F1특별법이 제정돼도 정부에서 지원할 금액은 1년에 130억 원 안팎으로, 총 지원액은 1천억 원 정도가 고작”이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전남도 차원에서 그냥 추진할 생각”이라고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위기에 처한 지역 조선산업과 관련 “조선산업은 지난 2004년 정부가 전남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전남도는 정부를 믿고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선산업을 육성해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여건이 나빠졌다고 해서 (조선사들의) 문을 닫게 하면 누가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겠느냐”고 따졌다. 박 지사는 또 “신설 조선사들이 금융여건 악화로 고전하고 있는데, 금융논리에만 치우쳐 구조조정을 하려고 해서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중소 조선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주 광기술, 미래 선도 기대 커”

#### 李 대통령 방문 이모저모

#### 영산강 수심 5~10m는 돼야

○이 대통령은 이날 나뭇도 영산강 살리기 현장에서 한 주민이 “영산강이 과거 수심이 10m였고 비가 많이 오면 11m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1m도 안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토로하자 “그 래서 준설을 빨리 해야 한다”면서 “4대강의 수심이 5~10m는 돼야 한다”고 지적.

이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언급하며 “도산 선생은 자신의 저서에서 강을 살리자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강산개조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영산강의 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을 잘 관리하고 이게 잘 되면 수자원이 풍부할 수 있다”면서 “영산강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생태공원 같은 것으로 지어야 한다”며

깊은 관심을 표명.

○이 대통령은 한국광기술원에서 “광주는 중점 3대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光)기술”이라면서 “세계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곳은 없고 이 분야가 미래산업이어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가 호남고속철로 연결되면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가 되고 그러면 광주가 산업중심으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며 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대한의지를 거듭 표명.

#### 문화콘텐츠광주 유치 기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아시아 문화전당이 이명박 정부의 최대의 치적이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특히 문화콘텐츠연구원을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 설립하겠다고 밝혀 광주 유치를 위한 기대를 갖게 하기도.

/최권일·윤영기기자 cki@

## 빛의만평

- 김중두



진짜 시베리아 한파가 왔다

### 오바마, 워싱턴포스트 깜짝 방문

15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뉴스 편집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은 다름 아닌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오바마는 이날 편집국 간부들과 기자들을 만나기 위해 편집실을 찾았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인 하워드 커츠는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에 올린 글에서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가 편집실을 다녀간 이래 오처럼 야단법석이 벌어진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그레이엄 워싱턴포스트 회장과 함께 편집실을 찾은 오바마는 200여명의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했다. 여기서 카메라폰이 터졌다.

오바마는 “스포츠 기자들은 어디에 있느냐”며 워싱턴이 연고인 미 프로풋볼, 프로야구, 프



로농구팀인 “레드스킨스, 내셔널스, 워저즈에 대해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미대선을 취재한 한 기자에게 대선 취재로 인해 쌓였던 피로에서 회복됐냐고 묻자 그 기자는 최근 오바마의 하와이 휴가를 13일간 취재했다고 대답, 오바마의 허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 장흥 표고버섯,靑 설 선물로 선정돼

정남진장흥농협(조합장 고홍천)이 생산하는 표고버섯이 올해 이명박 대통령 설 선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장흥표고버섯은 지난 2006년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정남진장흥농협의 대표 특산품으로 현재 982농가에서 전국 총 생산량의 38%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통령 설 선물로 선정돼 그 명성을 전국에 알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과 5부 요인, 국회의원, 장·차관,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 5천500여명에게 장흥표고버섯 등 설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설 선물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환경미화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으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 /이종태기자 jilee@

### 삼성, 사상 최대폭 세대교체

#### 사장단 25명 승진·이동 인사 단행

삼성그룹은 16일 김정완 삼성중공업 사장과 이상대 삼성물산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대폭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경영진을 재구성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삼성중공업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12명, 이동·위촉업무 변경 11명 등 총 25명 규모의 올해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삼성 특검’ 이후 철회된 조직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것으로 삼성은 글로벌 경쟁력 극복을 위해 젊고 참신한 인사를 대거 발탁했다. 김정완 삼성중공업 사장과 이상대 삼성물



〈김정완 부회장〉 〈이상대 부회장〉

산 사장은 각각 삼성중공업 부회장, 삼성물산 부회장으로 승진했다.〈사진〉 삼성전자 이윤우 부회장은 부회장 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으로, 삼성전자 최지성 정보통신총괄 사장은 삼성전자 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부문 사장으로 내정됐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대표 FAX>	222-4918	< F A X >	222-800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 F A X >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원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 F A X > 222-8005 < F A X >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 F A X > 227-9500 < F A X >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 F A X >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